

# '중원의 삼총사'를 찾아라

18일 우즈베키스탄 원정경기에서 후반 30분 백지훈의 프리킥 한 방으로 승리(1-0)를 따내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 진출에 성공한 베어백호가 공격과 수비의 허리역할을 맡는 중원 미드필더의 완벽한 조합을 찾기 위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 베어백호 중앙MF 최적의 요원 찾기 고심

### 다양한 실험 속 오장은·백지훈 일단 합격

베어백 감독은 그동안 4-3-3전술을 기본으로 포백(4-back)에 최철순(전북)-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김창수(대전) 라인을 비롯해 좌우 측면 날개에는 이근호(대구)-이승현(부산)을, 최전방 원톱에는 양동현(울산)을 붙박이 요원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중원의 미드필더 삼각관계는 여전히 '육석 가리기'가 진행중이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해 11월 일본과 1차 평가전에선 박주영(서울)을 꼭짓점으로 오장은(울산)과 김승용(광주)을 처음 세웠다. 2차전에서는 김승용을 정점으로 천재훈(서울)-이요한(제주)이 짝을 맞췄다. 이후 2차 예선을 시작하면서 박주영-오장은-백지훈을 중원 라인으로 확정하려는 듯 했지만 박주영의 '배치기 퇴장' 징계로 한동원(성남)이 수월했고, 백지훈이 등 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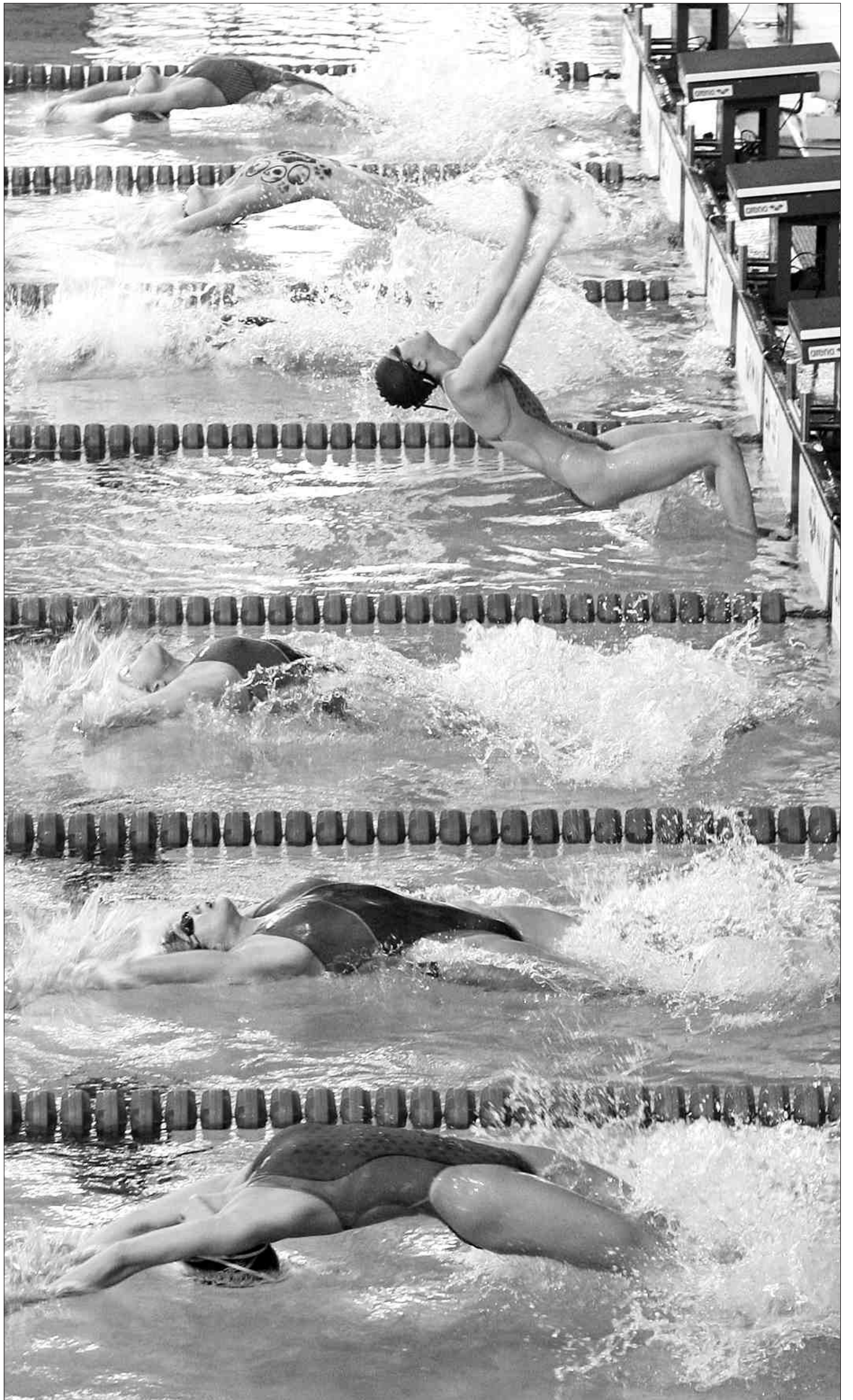
인해 좋은 컨디션을 찾지 못하자 이요한과 기성용(서울)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가동해 왔다. 그동안 한국은 6경기에서 9골을 터트리는 동안 공격형 미드필더를 빼고 중원을 지키는 두 명의 미드필더에서 나온 골은 백지훈의 프리킥골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측면 돌파에 의한 골 마무리를 주요 득점루트로 삼으면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세우는 베어백 감독의 기본 전략이 오히려 득점루트의 다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베어백 감독이 미드필더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장과 백지훈의 조합을 기본으로 이요한과 기성용이 경쟁을 펼치는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

###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

일본이 한국에 이어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에 합류했다. 북한은 무패행진속에 조 선두를 달려 최종예선행 9부 능선을 넘었다. 일본은 19일 시리아를 2-0으로 완파, 4연승으로 최종예선에 올랐다. 시리아는 2승2패로 B조 2위. E조 북한도 인도전서 2-1 승리를 거두고 3승1무를 기록, 승점 1만 추가하며 최종예선에 오른다. 이라크는 조 2위를 지켰다. D조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3승1패로 선두다. 조 2위는 호주와 이란이 다투고 있다. 이밖에 A조는 쿠웨이트가 선두를 지켰고, C조는 베트남이 깜짝 선두로 나섰다. 한편 2차 예선 6개조 1, 2위 팀이 진출하는 최종예선은 8월22일부터 11월22일까지 홈 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각조 1위만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이라크는 시드를 받아 같은 조에 배정되는 않을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이쿠, 늦었다"

19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 여중부 배영 예선 100m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한 선수가 뒤늦게 출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지성 에너지가 넘친다"



### 맨유 공격수 루니 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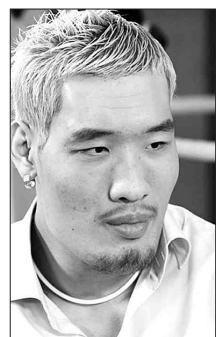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웨인 루니(22·사진)가 팀 동료 박지성(26)과 진한 동료애를 과시했다.

루니는 18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맨유의 홈 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나이키사의 축구화 '보탈90 레이저' 론칭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지성에 대해 "출름하고 뛰어난 선수이며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성을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동

료로서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루니는 "컴퓨터 게임을 종종 하는데 박지성은 게임에 질 때면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한다"며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루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최홍만 28일 K-1 재기전 마이크 말론과 하와이서

종합격투기 데뷔 이후 처음으로 KO 패를 당했던 최홍만(27·사진)이 28일 K-1 미국 하와이 대회에서 마이크 말론(35)을 상대로 재기전을 치른다. K-1 주최사인 FEG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홍만이 이달 28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K-1월드그랑프리 2007' 번외경기인 슈퍼파이트에 출전, 3분3라운드 입식 타격 방식으로 말론과 맞붙는다고 발표했다.



다. 애초 최홍만은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 아니었으나 지난 달 4일 일본에서 열린 K-1대회에서 마이티 모(34·미국)에게 2회 KO로 패배한 뒤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기전을 치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홍만은 당시 완패를 당한 뒤 "경기를 치르기 전에 충분히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금)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2R(14:00·Xsports)  
▲휠체어 농구대회 결승전(14:10·KBS 1)  
▲프로야구(현대-롯데)(18:00·KBS SPORTS)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00·MBC ESPN)  
▲프로야구(LG-삼성)(18:20·SBS스포츠)

# 전국 최강 광주벨인퍼컴 여자 볼링팀



▲제22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볼링대회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한 광주벨인퍼컴 선수단. 왼쪽부터 강혜은, 김여진, 윤희여, 홍수연, 이나영, 손연희 선수.



##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